

애서가 愛書家가 사랑한 책들



그 남자의 책장, 무엇이 특별했을까
고광영 지음
침묵세상 펴냄
1만5천원

前 불교시대사 대표 고광영(사진)의 유고집이다. '삶에 힘이 되어주는 고광영의 책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썼던 책 이야기 44편을 모은 서평집이다. 이 책은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책의 일부로 다루어 준다. 과정에 참여한 인연들이 단순한 '스텝'의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책'의 의미와 함께 고인에게 바치는 헌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후배인 석길갑 박사가 흠여져 있던 원고를 모았고, 도반인 한양대 이도흠 교수가 책 속의 '책갈피'와 '내용요약'에 힘을 보탤었다. 저자의 아내인 사기순 씨(불교시대사 기획위원)가 엮었고, 저자가 평생 일했던 불교시대사의 자회사 잠글세상이 펴냈다.

2011년 4월 18일, 불교를 아끼고 책을 아꼈던 저자는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가깝게 지냈던 법인(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스님은 "이제 보살 고광영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책사랑'과 '일체존재에 대한 연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곳저곳에 흔적으로 남긴 '책 사랑 이야기'들을 찾아 엮어서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다. 이 일을 고광영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남편 못지않게 불

교 출판에 대한 애정이 깊고 탁월한 편집자이기도 하였던 사기순이 맡아서 하였으니, 남편 생전에 다 하지 못한 사랑까지 듬뿍 더해져서 책이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고광영과 사기순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 현재에 이어 둘째 아들인 샘이다."고 서문에 썼다. 이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온 책이다. 저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으로 월간(현대불교) 기자를 시작으로, 월간(불은) 기자를 거쳐, 불교 전문출판사인 불교시대사에 입사하여 대표까지 지냈으며, <불교평론> 편집장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출판인이었다. 도반이었던 이도흠 교수는 "어찌 되었든 그는 지금 여기 없다. 대신 글과 생각은 남았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 대해 함께 꿈꾸던 것들은 이제 남은 이들의 몫이다. 그가 썼던 글 가운데 서평을 한 것을 모아 유복자처럼 출판 시키려 한다. 사람이 죽으면 흙, 물, 불, 바람으로 흩어진다고 했는가. 그의 삶은 흙으로 되었다가 나무로, 다시 종이로 변화하였고, 그의 피는 잉크가 되었고, 그의 체온은 글 속의 기운으로 빛나고, 그의 행동은 책갈피를 들출 때마다 바람으로 분다."고 서문에 썼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책갈피마다에서 이는 그의 바람을 맞는 것이다. 그 남자의 책장엔 어떤 특별한 책들이 있었을까.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불교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신동훈의 <살아있는 우리 신화>,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도미야 이타루의 <나는 이제 오랑캐의 웃을 잊었소> 등의 책을 통해 동서양의 고전을 만나고, 김종래의 <우마드(womad)>와 시오노 나미의 <남자들에게>를 통해 매력 있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한편 조세희의 <남자가 쏘아올린 공>을 통해 여전히



前 불교시대사 대표 고광영의 유고집
생전에 써놓은 서평 44편 모은 것
남편 그리며 아내가 만든 책

우울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고, 최성현의 <좁쌀 한 알>에서는 무위당 장일순의 삶을 조명했다. 저자는 해당 책마다 '책갈피'면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뽑아 소개했고, '내용요약'면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다. '책갈피'와 '내용요약'만 읽어도 책 한 권의 내용을 대충은 알 수 있게 해놓았다. 유용주의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에서는 삶 자체가 미덕임을 힘주어 말하고, 주자청의 <아버지의 뒷모습>에서는 돌아가신 부친에게 살갑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 <마시멜로 이야기>,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소호카의 꿈>, 등의 자기계발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랐던 세상살이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마지막 구절, "요즘 화두는 웰빙이다. 몸에 좋다면 물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하기 전에 명이나 명약을 찾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볼 일이다.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다."라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 이현의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정민의 <미쳐야 미친다>, 이승복의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 등 평소 아내와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다. 책의 마지막에 소개된 책은 책 콘필드의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다. 저자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깨달음 후에도 삶은 계속 된다."고 했는데,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이 책을 통해 그의 삶과 뜻은 계속될 것이다. '삶에 힘이 되어주는 책 이야기', 책의 부제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은 한 줄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 남자의 책장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hyunbul.com

여든 되서 쓴 시

여든이 되어 보름

한계주 지음 | 시학 펴냄 | 8천원



여든이 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수필가 한계주의 첫 번째 시집이다. <사랑만 하다가기도 짧은 인생>, <모천으로 돌아가다>,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등 수필만 써왔던 수필가 한계주의 첫 번째 시집이다. 아마도 여든부터의 이야기는 '시'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는 이제 여든 돌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 그저 고맙고 // 세상 별거 아니다 싶어 / 그저 우습고 // 아이들 잘 살아 주니 고맙고 / 부모 형제 잊지 않으니 더욱 고맙고 //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 화나는 일 없어 좋고 //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여든이 되어보렴·1' 여든. 쉽지 않았던 나이. 이젠 어렵지 않은 나이. 쉬워진 '여든'이지만 모두 '여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편 한 편 시를 읽어가며 든 생각이다. 여든의 시선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고마움에 닿아있고, 시는 시인이 여든 해 동안 써왔던 언어들 중에서 여전히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언어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수필가 한계주의 첫 시집

여든이 되어 느낀 삶의 단상 101편

'여든'은 / 일흔아홉에 하나를 더하는 / 숫자가 아니다 // 열을 여덟 개 푼듯 말아 / "옛다 먹어라"하고 / 가슴 한복판에 던져진 폭탄 세례 // "넌 아니야" 하고 / 등을 돌렸는데 // 돌렸다 생각했는데 / 그 여든도 가고 있다 -여든-

'여든'도 마찬가지로이다. 가는 것을 아쉬워했다. 여든이 되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쓸쓸한 여든 살', '여든의 기억', '여든, 잔치는 끝났다'... 시집엔 101편의 시가 실려 있다. 삶이 던진 질문들, 풀지 못한 의문들. 하고 싶었던 것들. 깨달은 것들. 암마. 당신. 마흔넷 젊디젊은 나이에 우리를 두고 가신 아버지. 그리운 것들. 이별했던 것들. 시. 근심했던 것들. 선생님. 열반송 하나 남기지 않고 / 수도도 관도 / 만장도 없이 /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법정 스님. 주리반타가 사는 운문사. '관조'라는 골조를 채워가는 언어들은 따뜻하면서도 노련하다. '여든'이 그런 것 같다. '장(場)을 접을 나이에 / 손바닥만 한 명석을 편다 // 달 속에 토끼가 놓고 / 사다리 타고 별을 따라 가던 / 그 자리에 선다 // 별에 닿을까 / 허공을 휘저어 본다 // 내 깊은 마음 어디엔가 떨어져 숨어 있는 / 별 하나 건져 올릴 수 있다면 // 너와나 / 따뜻한 마음 한 자락 / 나날 가질 수 있다면 -별-' 시인은 뒤늦게 손바닥만 한 명석을 펴고 마음 어디엔가에서 별을 건져 올리고 있다. 여든의 시인이 쓴 시 '여든'이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앤파크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건널 길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미음출판사
8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9	놓아버리기	이안 브라더	공리
10	불교공부사전	곽철환	운주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참음이란 무엇인가...내가 '참음'이 되어라

행복기심-참는 연습

영국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5백원



"왜 이러한 괴로운 상황이 하필 나에게 오는가" '참음'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지, 참음이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디서 참아야 하는지, 무엇을 참으며 무엇으로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참는지와 같은 6H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의 3장에서는 참음의 공덕을, 제4장에서는 참음의 완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참음의 모태인 자재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인 영국 스님은 7년 전 부산에서 '금강경' 강의를 하다가 인욕선인(忍辱仙人)의 설화를 접하게 되면서 참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참음의 중요

성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기 위해 묶어놓은 자료가 책으로 나오게 됐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란 능히 참는다는 뜻으로 능인(能忍), 또는 감인(堪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감인토, 즉 능히 견디어 내어야 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참아야' 하는 세계에 와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세계에 살고 싶은데 왜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러한 세계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평탄하지 못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출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부터 차근차근 짚어간다. 참는 자는 누구인가. 참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참음의 여러 분류 가운데 <좌선삼매경>의 분류에 따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님은 참음에 종류와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참음에는 경전과 각종 주석서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 참음(二忍), 세가지 참음(三忍)부터 열

가지 참음(十忍) 등이 그것입니다.

"최상의 참음"이란 참음을 실천하여 나아가서 그 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곧 '궁극적 참음'이며 '완벽한 참음'이요, 참음의 완성입니다. 참음의 완성은 '내가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음'이 되어 '참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으면서 참는 줄 모릅니다." 결국 모든 법문은 '실천'이라는 명제 앞에 선다. 참음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천인 것이다. 참음을 알고만 있는 것은 책을 들고만 있는 것과 같다. '행복기심',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받아내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하는 순간이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인 영국 스님은 무주군 덕유산 자락 깊은 곳에서 태어났다. 자신의 업보를 알게 된 스님은 오랫동안 마음에 맺혔던 원망의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 본격적인 참선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 수좌인 저자는 여름·겨울철 절제 때마다 선원에서 안거수행을 하고 있다. 해제 때는 신도들에게 경전을 강의하거나 번역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려다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지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실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붓다북과 인터넷 서점에서 법화경 사경을 사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으로 붓펜을 드립니다.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우리말 법화경 사경 (전5권)

혜조역 /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역 / 국판양장 / 금장 630쪽
가죽: 20,000원 / 가죽·지퍼: 25,000원

고급스럽게 꾸민 새로운 장정!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독송용 한문 법화경

국판누박양장 / 금장 600쪽 / 18,000원

